

간호·특성학과 선전…인문계는 여전히 좁은 문



교육부의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른 광주 지역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 65.3%다. 전국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67.0%)보다 낮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사진은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역대학 취업률 보니

극심한 취업 한파 속 광주·전남 대학생들은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을까. 어떤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취업 성공률이 높을까.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광주일보 12월 17일 7면>는 광주 지역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의 이번 통계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13년 8월 졸업자와 2014년 2월 졸업자 전체를 조사한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최근 학교별 유지취업률 확인 과정을 거쳐 광주·전남 대학을 비롯한 전국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을 공개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취업률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광주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전국 최하위권=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른 광주 지역 고등교육기관 취업률은 65.3%다.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 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을 의미한다.

광주의 경우 전국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67.0%)보다 낮고 지역별로는 대구·충북·세종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특히 광주 고등교육기관 취업

광주지역 평균 60.8%…전남대 58.2%·조선대 57.7%

광주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만년 하위권…청년 실업 심각

률은 전년도(64.1%)에 견줘 1.2%포인트 증가했지만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전남의 경우 66.9%로 전년도(68.1%)보다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대학 취업률은 60.8%로, 대구(60.5%), 경남(60.7%) 다음으로 낮았고 전문대 취업률은 68.2%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대학 취업률은 65.0%, 전문대 취업률은 67.1%였다.

◇**전남대 취업률 58.2%**, 조선대는 57.7%=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인 '대학알리미'를 들여다보면 광주·전남 대학을 비롯한 전국 대학·전문대 등의 취업률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 2013년 8월 졸업자와 201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취업률은 58.2%였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취업률(54.5%)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요 학과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의학과(95.7%), 간호학과(74.6%), 수의학과(64.9%)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경영학부(56.3%), 법학과(34.7%), 국어국문학

과(37.2%) 등으로 조사됐다.

국립대 취업률의 경우 ▲강원대 57.4% ▲경북대 59.9% ▲경상대 55% ▲부산대 61.1% ▲전북대 57.1% ▲제주대 61.4% ▲목포대 58% ▲순천대 56.7% ▲전남대 여수캠퍼스 60.6% 등이었다.

조선대의 취업률은 57.7%로 집계됐다. 조선대도 2013년 말 기준 55.4%보다 상승했지만 60%대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전공별로는 치의학과(100%), 군사학부(97.4%), 항공우주공학과(78.9%), 기계공학과(74.5%) 등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경영학부(62.9%), 국어국문학과(38.5%), 영어영문학과(51.4%) 등의 취업률도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광주교육대의 경우 2014년 말 기준 취업률은 74.7%로 전년도(80.8%)보다 6.1%포인트 낮아졌다.

다른 대학들도 한 눈에 취업률을 파악할 수 있다. 광주대의 경우 2013년 8월 졸업자와 201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취업률(2014년 말 기준)은 60.4%로 전년도 같은 기간(66.5%)보다 낮아졌다.

이외 광주여대 취업률은 65.3%(2013년 12월 말 66%)로 전공별로 치위생학과(93.

■ 고등교육기관 전년 대비 취업률 비교

〈대학·전문대·교육대학 등〉	단위: %	2014년	2013년	증감
울산		72.9	73.3	△0.4
인천		70.3	71.6	△1.3
대전		68.5	69.3	△0.8
충남		67.9	67.6	0.3
서울		67.7	69.1	△1.4
전남		66.9	68.1	△1.2
경기		66.8	66.7	0.1
경북		66.8	66.3	0.5
강원		66.7	67.4	△0.7
경남		66.6	68.1	△1.5
부산		66.5	66.4	0.1
전북		65.8	66.2	△0.4
제주		65.4	66.9	△1.5
대구		65.3	66.1	△0.8
광주		65.3	64.1	1.2
충북		65.3	65.2	0.1
세종		64.1	65.8	△1.7
총계		67	67.4	△0.4

■ 광주지역 대학 취업률

	2014	2013	2012
광주교대	74.7	80.8	66.5
광주대	60.4	66.5	62.6
광주여대	65.3	66	69
동신대	68.7	68.1	70.8
목포대	58	54.7	57.5
순천대	56.7	57.8	61.7
전남대	58.2	54.5	55.2
전남대 여수	60.6	54.6	60.8
조선대	57.7	55.4	61.1
호남대	66.7	59.6	67.5

※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교육부·대학알리미)

9%), 항공서비스학과(63.8%) 등이었다. 동신대 취업률은 68.7%(/ 68.1%)로, 한 의학과(91.8%), 스텐다스학과(52.5%) 등으로 조사됐다. 호남대의 경우 66.7%(/ 59.6%)로 집계됐고 호텔경영학과(70.8%), 국제학부(중국어학과 80.8%)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취업률도 살펴볼 수 있어 2014년 말 기준으로 한 취업률은 동강대 66.8%, 서영대 66.6%, 조선이공대 65.5%, 전남도립대 60.6% 등이었다. 입학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진 간호과의 경우 광주보건대 간호과의 취업률(주간·일반과정·2014년 말 기준) 94.1%, 동강대 간호과 89.7%, 서영대 간호과 74%, 조선간호대 간호과 72.5% 등으로 파악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일반고들 맞춤형 교과 '눈길'

목포 영흥고·여수 화양고 등 '교육역량 선도학교' 선정

전남 일반계 고등학교들의 변신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및 맞춤형 교과를 운영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어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2015년 교육역량 강화 우수 프로그램 운영 선도학교'로 목포 영흥고와 여수 화양고 등 전국 20개 일반고가 꼽혔다.

영흥고의 경우 15개 학급 초과 학교들 중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로 선정됐고 화양고는 1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가운데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흥고는 유관기관인 방송사와 연계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면서 관심이 쏠렸다. 학교측은 유명 강사를 초빙해 이뤄졌던 통상적인 인문학 강의에서 탈피, 학생이 직접 강사가 돼 인문학 강좌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운영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폰 오디오와 모의테스트

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는가 하면, 아나운서를 초청한 스피치 교육 등으로 학습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양고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도·농 복합지역에 적합한 선택과목과 진로 집중과정을 운영한 점이 인정됐다.

화양고는 '돌고래 행복포털 만들기'로 '나'를 찾아가기'라는 제목에 따라 인문사회·자연이공 등으로 나뉜 학업적 교육 과정 대신, 학생·교원·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인문사회·경상교육·생명과학·기술이공 등으로 세분화했고 학기중과 방학 기간으로 나눠 진로집중과정을 운영하는 차별화를 꾀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과정과 진로맞춤형 프로그램, 수업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평균 35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4·19 역사관 본격 건립 22일 착공식

4·19 역사관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4·19 민주혁명 발상지 역사교육관 건립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이병열)는 오는 22일 오후 광주교대 학교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역사교육관은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광주교대 3층 규모(연면적 830.5㎡)로 건립되며 전시실·강의실·연구실 등이 들어선다. 내년 7월 말 준공 예정이다.

건립추진위원회는 기존 광주시가 위

탁 운영중인 4·19 혁명기념관과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 시설로 운영한다는 구상을 세워놓은 상태다. 4·19 혁명 발상지인 광주교대에 들어선다는 점을 감안, 학생 참여를 높이는 콘텐츠로 교육관을 채운다는 게 추진위원회 계획이다.

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역사교육관이 자리나는 청소년들에게 광주 정신과 정체성을 알리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단신

▲**전남대, 공룡진품화석 현장체험교육**=전남대 박물관은 한국공룡연구센터와 공동으로 '5억년 전 화석들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한다. 하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김보성 목포자연사박물관 학에서, 최병도 한국공룡연구센터 연구원 등이 강사로 나선다.

현장체험교육은 오는 23일을 비롯, 30일과 2월 13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전남대 박물관 등에서 진행되며 희망자는 박물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교육청, 평준화지역 고교** 배정=전남도교육청은 도내 3개 고교

평준화 적용지역 입학 지원자 7905명에 대한 2016학년도 학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학군별 배정자수는 목포 학군(11개교) 2583명, 여수 학군(7개교) 2111명, 순천 학군(10개교) 3211명 등이다. 1지망 학생 배정비율은 76%였다. 배정 결과를 출신 중학교와 학군별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정 통지서도 배부한다.

▲**광주여대, 서진규 박사 초청 특강**=광주여대는 18일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장에서 '희망메신저'로 알려진 서진규 박사를 초청, '내 운명 내가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돈 되는, 근린상가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금호동 국민은행 건물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20만원 임대 보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시세-2억 5천만원, 급매 1억8천만원

남구, 송하동 임야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장기투자 최적장소
- 시세-8천만원, 매매-3천만원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2-4번지
- 89평,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장기투자 최적
- 시세-1천만원, 매매-400만원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시세-1억6천만원, 매매-1억원

회사 사정상 급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